

[루마니아어篇]

루마니아海洋研究所

루마니아海洋研究所는 80년 이상의 傳統을 지니고 있다. 1893年初 그레고레·안티퍼라는 海洋學者가 黑海周邊을 調査하여 海洋生態學에 관한 研究結果를 整理 發刊한 것이 그 始初이다.

19世紀末頃 植物프랑크턴의 最初調査를 시작한 것도 루마니아의 과학자이며 이 연구는 과학으로서의 藻類學基礎를 構築하는 크나큰 役割을 해냈다. 그후 류저메의 시스티머틱한 生物學的 研究가 시작되어 거듭할 수록 水文學, 水生物學, 海洋動物學 등으로 研究分野가 擴充되어 갔다.

이때에 에밀·라코비치, 유겐·플러, 미하이·바제스크등 著名한 學者가 登場하였다. 이들 各 研究者는 世界의 여러 海洋에서 活動한 결과 刮目할만한 發見이 있었고 國際學會에서도 높이 評價되었다.

이 같은 業績을 背景으로 1930年代에 들어 루마니아의 海洋연구체제를 보다 組織化하는 氣運이 일어 아지제아海洋動物學研究所, 콘스탄처生物·海洋研究所 그리고 그레고레·안티퍼海洋研究所가 繼續 設立되었다.

그후 40년동안 아지제아연구소의 設立者인 볼체어教授가 큰 研究業績을 포함하여 着實히 활동하였고 1970년에 이들 각 연구소가 統合되어 오늘의 루마니아해양연구소가 發足하였다.

새 연구소에서는 통합을 契機로 海洋工學, 다이버의 心理學, 醫學, 海洋汚染의 防止技術, 漁業技術 등 研究部門의 擴大強化, 各種實驗設備의 新設이 이루어 졌다.

연구소도 從來의 傳統을 살려 刮目할 만한 업적을 이룩하고 있다. 黑海의 資源 특히 漁

族資源의 養殖增產에 관한 연구는 큰 업적의 하나이다.

어업자원을 테마로 하여 魚類의 特性을 살린 產業規模에 의한 再生產, 成長과 飼料의 問題, 어류의 서식에 適合한 스페이스, 移動時期에서 差異가 있는 魚類移動의 原因따위의 幅넓은 生物學的研究, 海洋에서의 魚類動向의 正確한 豫測法과 같은 연구가 進行되고 있다.

이들 연구가운데

- ① 海洋生物의 養殖法
- ② 紫貝와 食用넙치의 人工養殖
- ③ 生化學分野에서 有用성이 높은 海藻類의 양식

등은 앞으로 큰 성과를 期待하고 있다.

또 이 연구소는 이제까지 生物群體, 프랑크턴에 관한 廣範圍한 조사도 進行중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미하이·바제스크教授의 指導에 따라 海洋生態學 全5卷으로 發刊되었다.

이와는 別途로 해양생물학의 조사결과를 取 合한 「西阿沿岸의 어류」라는 論文集全3卷도 發刊되었다. 이 內容에는 北西大西洋에 서식하는 어류의 案内書로서 評價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海洋年鑑도 出版하고 있다. 바다의 生物系研究 外에도 沿岸의 砂地海床, 生物學的 및 鑛物學的研究, 黑海의 水位, 水溫, 鹽分濃度의 變化, 海水의 化學成分, 汚染除去物質의 開發등 多角度的 研究를 하고 있다. 同研究所의 이같은 연구에 國際的인 關心꺼리가 되고 있으며 海洋性國家들로부터 研 안에 관한 綜合的 調査가 委託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여러나라로부터 海洋動物群의 科學調査나 其他 計劃에 대한 연구소스텝의 參加要請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